

<서평>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Ray Pritz,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9)

김준현*

1. 들어가는 말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레이 프리츠(Ray Pritz)는 성서에 등장하는 물건들을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항목은 또 다시 유사성이 있는 종류들로 묶어서 소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저자는 서론 부분에서 자신의 의도와 책의 구성에 대해 밝힌 후 각 장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물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책의 특성에 따라 본 서평에서는 먼저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책의 서론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후에, 각 장에서 특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항목을 하나씩 선택하여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할 것이다. 즉, 여기서 검토하는 항목이 그 장의 대표 항목은 아니다. 저자도 어떤 항목이 그 장을 대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모든 항목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서술해 갔기 때문에 각 장에서 하나의 항목씩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이 책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 장에 관련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비평을 하도록 하겠다.

2. 서론

저자는 서론에서 왜 이 책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서에는 적어도 인간이 만든 500개 이상의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번역

* 루터대학교 강사, 구약학.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물건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 지금까지 보존된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물건들은 과거에만 사용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있고, 또는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으나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 그 물건에 적합한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한 물건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자재들이 다르고, 사물을 번역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의 경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서에 나오는 3,000년 전의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쓰였던 낱말이 현재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당시에는 그 물건에 대해 하나의 단어만 있었으나 현재에는 10개가 넘는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번역자는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의 경우 현재의 독자들이 알 수 없는 물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그 10개가 넘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성서에서 의도하는 것과 일치 혹은 근접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대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고대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에 상응하는 현대의 물건들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의 좋은 예로 “펜”을 들고 있다. 저자는 성서에서 글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볼펜”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볼펜”이 그 당시에 없었고, “볼펜”이 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번역자가 성서에 등장하는 물건에 상응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그 지역의 언어나 또는 무역 언어에서 빌려올 수 있고, 둘째는 번역을 할 때 그 물건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의 기능까지도 번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설명을 각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성서 번역 마지막에 부록으로 “사전”을 첨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물건이 언급되고 있는 본문에서 그 물건을 다른 것과 치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문”이다. “네가 그의 문들을 소유할 것이다”(창 24:60) 하는 표현은 성문들이 달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것을 “네가 그의 도시를 차지할 것이다”로 번역하여도 의미상의 손실은 없기에 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치환의 경우에 있어서 번역자는 섬세하게 성서에서 언급된 물건의 의미나 취지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프리츠는 성서에서 물건들이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번역자는 그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 사용된 물건을 문자적으로 옮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비유적으로 사용된 그 물건이 번역될 때 그 번역되는 문화권에서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유적 의미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을 성서의 물질문화에 대한 하나의 사전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책은 성서에 등장하는 물건들에 대한 사전이 아니라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의 물건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이나 또는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참고 구절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거의 각 항목마다 삽화 혹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번역자들이 성서에 기록된 특수한 물건들을 번역할 때에 올바른 낱말이나 어구를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위한 것이다. 사진들의 경우는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된 물건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성서 시대의 실체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물건들의 치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저자는 성서에 등장하는 물건들의 각각의 치수를 제시한 후에 그것에 상응하는 현대적 치수로 변환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조 본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제2경전’ 혹은 ‘아포크립파(외경)’라고 불리는 본문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성서를 번역할 때 모든 교회들과 협력하는데, 그들 중에는 ‘제2경전’을 인정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찌면 생소할 수 있는 ‘제2경전’에 속하는 참조 문헌들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저자가 한국의 독자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3. 내용

이 책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목차가 아니다. 목차 다음에 나오는 분류 목록이다.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책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기에 이 분류 목록을 살펴봄으로서 저자가 어떤 물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책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장은 “주거”에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16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각각의 소항목은 하나에서부터 열네 개까지의 더 작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장은 전체 400여 페이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100여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16개의 소항목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농업과 목축, 1.2 가축 농사, 1.3 낚시, 1.4 사냥, 1.5 장인들, 1.6 상업, 1.7 기록, 1.8 건축가, 1.9 이발사, 1.10 왕실, 1.11 대장간, 1.12 목수, 1.13 가죽, 1.14 줄, 끈, 1.15 의사와 약, 1.16 직공, 세탁업자. 이러한 16개의 소항목 중 1.1.8 항목인 “탈곡과 키질”은 또 다시 4개의 더 작은 항목을 가지고 있고, 1.1.9 항목인 “철로 된 기구들”도 역시 4개의 더 작은 항목을 가지고 있다. 1.2 가축 농사 항목 밑에 다시 6개의 더 작은 분류 항목이 있고 1.3. 낚시 항목은 3개의 더 작은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1.3.1 그물 항목은 더 세분해서 3개의 카테고리 나뉘어 있다. 1.4 사냥 항목도 역시 3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1.5 장인들 항목은 3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는데, 1.5.1 도예가 항목 밑에 2개, 1.5.2 조각가 항목 밑에 1개 그리고 1.5.3 옷 만드는 사람 밑에 14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6 직공 항목은 다시 4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고, 1.7 기록 항목에는 8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1.8 건축가들 항목은 6개의 소분류가 있고 그 중에서 1.8.4. 건물을 위한 각석(角石) 항목은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1.9 이발사는 1개, 1.10 왕실 항목은 5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1.11 대장간 항목은 2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1.1 용융로, 가마 항목이 1개의 더 작은 분류를 가지고 있다. 1.12 목수 항목은 7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1.13 가죽과 1.14 줄은 하위 항목이 없다. 그리고 1.15 의사와 약 항목은 5개의 하위 분류를 그리고 1.6 직공, 세탁업자도 1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2장부터 10장까지는 적게는 10여 페이지에서 많게는 50여 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2장은 “전쟁”과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19개의 소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2.1 무기, 2.2 투석기, 2.3 칼, 2.4 단검, 2.5 창, 긴창, 2.6 투창, 2.7 곤봉, 전투용 곤봉, 철퇴, 부수는 무기, 2.8 전투용 도끼, 2.9 헬멧, 2.10 방패, 2.11 다리 갑옷, 다리 보호구, 2.12 흉갑, 가슴 보호구, 2.13 비늘[처럼 생긴] 갑옷, 쇠 미늘 갑옷, 2.14 궁도, 2.15 전차, 2.16 코끼리 위의 나무로 만든 [전투용 상자], 2.17 군기, 깃발, 기, 2.18 장벽, 장애물, 방해물, 2.19 포위 장비들

이다. 이 중에서 하위 항목을 가지는 것은 2.3 칼, 2.5 창, 긴장, 2.15 전차 항목이 각 1개씩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고 2.10 방패 항목은 2개의 하위 항목을 그리고 2.14 궁도 항목이 3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2.19 항목인 포위 장비 항목이 8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3장에서 다루는 것은 “건물들과 건축물들”에 관한 것들이다. 프리츠는 3장을 21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3.1 집, 영구적인 거주지, 3.2 텐트, 3.3 객사, 3.4 궁, 3.5 원기둥, 기둥, 기둥머리, 3.6 경계 벽, 담장, 3.7 경계 표시, 3.8 우물, 3.9 수조, 3.10 웅덩이, 3.11 수직 수로, 수로, 해협, 상수도, 3.12 석조 집, 3.13 지역의 [공공] 구조물, 3.14 성전, 3.15 회합을 [위한] 천막과 성막, 3.16 간이 거처, 오두막, 3.17 회당, 3.18 큰 방, 강당, 3.19 법정, 재판소, 3.20 마당, 공터, 3.21 감옥과 양형의 행위이다. 3.1 집, 영구적인 거주지 항목은 7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 있다. 그 중에서 3.1.1 “기초” 항목이 1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3.1.2 문, 출입문 항목이 6개의 더 작은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고 3.1.5 천장, 옥상 항목이 3개의 하위 분류를 그리고 3.1.6 방 항목이 9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들은 하위 항목이 없다. 3.2 텐트 항목은 21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3.12 석조집이 1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고, 3.13 시 구조물 항목은 다시 10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 10개 중에서 3.13.3 항목인 도시 요새화 항목은 5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이 5개 중 5번째인 3.13.3.5 항목인 도시 성문은 다시 2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3.13.6 극장 항목은 1개의 하위 분류를, 3.14 성전 항목은 3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14.1 유대 성막 항목이 8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3.15 회합을 [위한] 천막과 성막 항목은 2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막 항목은 다시 3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다. 그 3개의 하위 분류 중에서 3.15.2.3 성막 구조 항목은 다시 9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에서 6번째인 3.15.2.3.6 덮는 것들 항목은 다시 4개의 더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3.15.2.3.9 걸려 있는 것들, 주변 커튼 항목은 다시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3.20 뜰, 법정 항목이 1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며, 3.21 감옥과 양형 행위 항목은 다시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있다.

저자가 4장에서 다루는 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모두 9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4.1 법례, 계약의 상자, 4.2 제단, 4.3 성막과 성전의 가구, 4.4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 4.5 대제사장의 옷, 4.6 상(像), 4.7 제의 장소, 거룩한 곳, 4.8 장례와 상복, 4.9 제비뽑기. 4.1 법례, 계약의 상자 항목은 2개의 하위 분류 목록이 있고 4.2 제단 항목은 4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4.2.1 돌 제단 항목이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고 4.2.2. 성막의 제단 항목도 하

나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4.3 성막과 성전의 가구 항목은 모두 6개의 하위 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3.4 램프 스탠드, 메노라(7-9개로 나뉜 촛대)가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3.5 성별된 빵을 위한 식탁 항목도 역사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4.4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 항목은 모두 10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4.7 향로 항목은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진다. 4.5 대제사장의 옷 항목도 8개의 하위 분류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4.5.3 예복 항목이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4.6 상(像) 항목도 7개의 하위 분류 항목으로 재구분되고 있다. 4.8 장례와 상복 항목은 5개의 하위 분류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 4.8.1 무덤, 묘 항목과 4.8.3 염(殮) 항목은 각각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9 제비뽑기 항목도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가정”과 관련된 물건들이다. 여기서는 “가정”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21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5.1 등잔과 심지, 5.2 램프 스탠드, 5.3 등불, 5.4 횃불, 5.5 침대, 이불, 5.6 등 받침, 베개, 5.7 식사를 위한 상, 5.8 발을 얹는 받침, 5.9 의자, 좌석, 5.10 멧돌, 방앗간, 5.11 오븐, 5.12 요리용 냄비, 주전자, 5.13 [요리용] 변철, 5.14 거울, 5.15 포도주 백, 물주머니, 5.16 대야, 세면기, 5.17 카펫, 깔개, 5.18 용기, 그릇, 5.19 옷장, 보관장, 선반, 5.20 먹는 도구, 5.21 그 밖의 가정용품들. 그 중에서 5.5 침대, 이불 항목은 2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5.18 용기, 그릇 항목은 좀더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2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5.18.1 저장을 위한 그릇들 항목은 4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5.18.1.2. 흡으로 된 단지 항목은 2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5.20 먹는 도구 항목과 5.21 그 밖의 가정 용품들 항목은 각각 4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6장에서는 성서에 등장하는 “옷”과 관련된 물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6장은 모두 16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6.1 옷(일반적인), 6.2 겹옷, 망토, 덮는 옷, 예복, 6.3 셔츠, 튜닉(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 6.4 살바 [속옷], 6.5 가죽 옷, 6.6 요대, 띠, 허리띠, 6.7 머리에 쓰는 수건, 터번, 모자, 6.8 화관, 왕관, 6.9 화환, 6.10 앞치마, 6.11 성구함, 6.12 면사포, 6.13 샌들, 신발, 6.14 손목 띠, [부적] 장식물, 6.15 미망인의 옷, 6.16 갓난아이를 감싸는 옷. 6.2 겹옷, 망토, 덮는 옷. 예복 항목은 3개의 하위 분류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6.2.1 [옷의] 단, 천의 끝자락 항목은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6.13 샌들, 신발 항목도 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7장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모두 4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7.1 음악적 도구들(일반적), 7.2 현악기들, 7.3 관악기

들, 7.4 타악기들이다. 7.2 현악기들 항목은 2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7.3 관악기들은 4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그리고 7.4 타악기들 항목은 6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프리츠는 8장에서 “운송 수단”과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모두 4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8.1 배, 선박, 8.2 수레, 4륜 우마차, 8.3 바퀴, 8.4 안장, 번호 새긴 천. 이 중에서 8.1 배, 선박 항목은 11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9장에서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프리츠는 이 부분을 모두 7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9.1 포도주, 9.2 주류, 맥주, 9.3 올리브기름, 9.4 빵, 9.5 눌러서 말린 과일 조각, 9.6 수오프, 스투, 9.7 요구르트, 응유[요구르트]. 9.1 포도주 항목은 3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9.4 빵 항목은 4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장인 10장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물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모두 6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0.1 가방, 봉지, 전대, 지갑, 10.2 직인, 인장반지, 반지, 10.3 손수건, 옷, 10.4 수건, 10.5 보석류, 장신구, 10.6 화장품류. 이 중에서 10.5 보석류, 장신구 항목은 4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10.6 화장품 항목은 1개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 다시 2개의 하위 분류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들은 약 430개이다. 저자는 물건들의 용도를 따라서 분류하였고 때로는 아주 작은 단위로까지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상술한 책의 목차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책이 사전의 목적으로 하여 쓴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사전적인 분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필자는 각 장에서 한 부분씩을 택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은 이 책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참고하고 있는 성서 번역본의 종류이다. 이 책이 참고한 성서 번역본은 모두 30여 종이고, 그 언어의 종류는 5개 언어이다. 아쉽게도 아시아권의 언어는 참고하지 않았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번역의 실례를 들기 위해서 때때로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다.

1장의 일곱 번째 항목은 “기록”과 관련된 것이다. 프리츠는 이 항목을 다시 8개의 작은 단위로 분류하였다. 필자는 그 중에서 1.7.1 항목인 “두루마리,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참고 구절”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 부분은 성서와 소위 말하는 외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영어로 음역하여 표시하고 그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기록하였다. 당연한 것이지만 음역으로 표시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음역을 모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참고할 본문도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리고 외경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두루마리, 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모두 11개가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어가 나타나는 성서 혹은 외경의 구절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물건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즉, “두루마리는 기다란 기록용 물질로서 천이나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등을 이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루마리는 그 한쪽 끝에서 혹은 양쪽 끝에서 말아서 하나 혹은 두 개의 기둥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양쪽 끝은 막대기가 붙어 있다.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돌리면 기둥 모양이 된다. 둘둘 말려진 두루마리의 길이는 대부분 약 10미터(33피트) 정도 길이가 된다. 대략 넓이는 23-25센티미터(9-10인치)이다.”

이러한 묘사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단어에 대한 “용법”이 나온다. 두루마리의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는 비교적 적은 장소에서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문서는 대개의 경우 나란한 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면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제 프리츠는 “번역”으로 넘어간다.

즉, 실제로 번역자가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또한 특정 성서 구절을 예로 들어서 각각의 성서 번역에서 어떻게 그 단어를 번역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지역에서는 “편지”, “책”, “두루마리”라는 기록물에 대한 단어들만 단순한 그 물건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쓰여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에 번역자는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단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번역된 성서를 읽는 사람들의 문화가 “책”이라는 물건과 그 안에 쓰여진 내용을 따로 구분하는가 아닌가를 잘 고려하여 번역해야 한다.

히브리어의 “*sefer*”는 그것이 오늘날의 책에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편지”에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오늘날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번역자는 자신이 번역하는 그 문화권을 고려하면서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 성서인 Good News Translations의 신명기 24:2에서는 “papers”(『개역』에서는 “증서”24:3¹⁾)로 번역하였고, 열왕기하 5:5에서는 “letter”(『개역』에서는 “글”)로 번역하였다. 저자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자들을 돕고 있다. 간혹 어떤 항목에서는 “묘사”와 “용

1) 이 부분은 책의 오타이다. 히브리 성서와 『개역』 모두 신명기 24:3이 맞다.

법”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서에서 그 단어가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인 경우와 반대로 성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임에도 그 단어가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묘사”와 “용법” 부분을 묶어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필자의 유추일 뿐, 저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2장의 19번째 항목 중 8번째로 분류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다. 2장은 “무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19번째 항목은 “포위를 위한 도구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8번째로 나오는 것은 “Mantelet”으로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치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사전에서는 “짧은 망토, 휴대용 탄환 막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방패”에 더 가깝다.

이 책에 의하면 “참고 문헌”은 나훔 2:5(6) 한 곳뿐이다. 히브리어 단어는 음역하면 “*sokek*”이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보호하다”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문제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츠는 “묘사와 용법”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공성퇴(Battering ram)”를 움직이는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하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넓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mantelet*”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도구 혹은 물건은 병사들의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 병사들을 보호한 것이다. 이것은 “공성퇴”의 일부이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도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앞부분(2.10.1)에 나온 “넓은 방패” 항목을 참조하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목의 설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다른 설명을 참조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번역” 부분에 가면 이 단어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바로 알 수 있다. “많은 언어들에 이 고대의 전쟁 무기의 기술에 상응하는 언어가 없다”는 말로 “번역” 부분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나 영어를 예로 들면서 영어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기구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단어는 서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번역 성서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과 German common language version이다. 이 두 번역 성서는 이 단어를 직역하는 대신에 서술적으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프리츠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단어들을 번역할 때는 가능하면 서술적으로 풀어서 번역한 후 밑에다가 설명적인 각주를 첨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은 소위 말하는 ‘역동적 번역’과 ‘문자적 번역’ 사이의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한 저자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서를 번역해야 하는 번역자에게 항상 다가오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서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인 것이다.

3장은 “건물들과 건축물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소고는 15 번째 항목의 첫 번째 분류인 “Tent of Meeting(회합을 위한 천막)” 항목을 살펴볼려 한다. 이 부분의 제목은 “회합을 위한 천막과 성막”이다. 그러나 이것에 해당 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ohel*, ‘*ohel mo’ed*로, 문자적으로는 “회합을 위한 천막”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서에 나타나는 그 회수가 적고 또 “성막”과 이 단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다. 프리츠는 일단 이 단어는 아마도 모세를 위한 천막으로 무리들 바깥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서 노엘 오스본(Noel Osborn)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오스본의 이론을 여기서 전부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 요약하면 오스본은 출애굽기를 연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 말고 또 다른 천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전해져 오는 2가지 전통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프리츠는 이러한 오스본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번역자들에게 “성막”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프리츠의 노력은 번역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고 있다. 즉, 번역자들은 이미 익숙한 성서의 단어를 번역할 때도 다시 한 번 그 단어가 성서가 기록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번역자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4장은 “종교”에 대한 물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6번째 항목은 “우상”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고 구절” 부분에서 “우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14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동상” 혹은 “이미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도 소개하고 있다. 이 단어는 음역을 그대로 옮기면 “*tselem*”으로 다니엘서에서만 16회 쓰인 단어이다.

“우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쓰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단어에 대하여서 “묘사와 용법”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뜻이나 용법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바로 “번역” 부분이다. 저자는 “우상” 혹은 이 단어와 관련된 개념이 널리 퍼진 개념이며 의심의 여지없이 보편적인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어떤 언어에서는 단순하게 번역할 수 없고 어

떠한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제안에 덧붙여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즉,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단순히 “우상”으로만 번역하는 것 대신에 저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첨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영어 단어는 “disgusting(역겨운)”, “detestable(혐오스러운)”, 또는 “filthy(추잡한)”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성서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줄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우상”과 “동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성서에서 사용되는 “동상”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우상”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들도 대표할 수 있고, 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믿었던 신들을 대신하는 것도 될 수 있다. 성서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차이는 성서 번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5장을 살펴보자. 5장은 “가정” 혹은 가정집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물건들 중에서 영어로 “Lantern”으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에서는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 “*fanos*”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로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18:3 한 곳뿐이다.

“묘사” 부분을 보면 작은 불로서 운반하기에 편리하며,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바람과 날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테라코타(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로 된 것도 있으나 로마 사람들은 철 소재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등”을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는 등 위에 동그란 링(또는 천이나 가죽 끈)을 붙여서 운반했다. 이 단어에 대한 “용법”은 없다.

저자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즉, 초기 그리스 시대에 이 단어는 횃불을 의미하였으나, 신약성서 시대에 와서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 후, 요한복음 18:3에서는 이 단어가 두 가지 기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등”과 “횃불”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본들은 한 가지의 뜻만으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두 가지 뜻 모두를 번역한 역본들도 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 오늘날의 번역에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프리츠는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이 단어의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잘 감안할 것과 오늘날의 손전등의 개념으로 번역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장은 “옷”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루고 있다. 모두 16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11 성구함(Phylactery)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어도 신약에서는 1회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참고 구절은 마태복음 23:5이다. 헬라어 단어는 “*fulaktērion*”이다. 영어로는 “Phylactery”로 번역하였고 영한사전에는 “성구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성경에서는 “경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묘사”를 보면 이것은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로서 그 안에는 구약성서 구절들이 들어 있다고 되어 있다. “용법”을 보면 유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이마나 왼팔 윗부분, 심장에 가까운 곳에 착용했던 것으로서, 이것은 출애굽기 13:9과 신명기 6:8, 11:18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번역”의 맨 첫 줄에서 저자는 “성구함, 경문”(Phylacteries)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문화권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단어가 소위 기술적인 종교 용어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은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번역하지 않고 설명을 곁들여서 번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다른 번역본들도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서 번역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츠는 이러한 설명적인 번역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저자인 프리츠는 이 책의 7장의 제목은 “음악”이다. 즉, 음악과 관련된 물건들인 악기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본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장의 제목은 ‘악기’가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물건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장의 제목은 ‘악기’가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7장은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장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장이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다른 장들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 나타낸 곳이 7.2.1 항목이다. 이 항목의 제목은 “비파, 큰 수금, 기타, 하프(*Nevel, large lyre, guitar, harp*)”이다. “참고 구절”들도 세분화되어 있다. 비파(*nevel*), 수금(*qathros*), 거문고(*kithara*), 거문고(*kithatizō*), 거문고(*kitharōidos*), *nabla*, *psaltērion*, 수금(*psanterin*), *psalterium*의 순서로 언급되고 있다. 한글로 번역하지 않은 단어들은 외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단어들인 영어로 번역될 때와 한글로 번역될 때 그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영어로 번역한 이 항목의 소제목에는 분명히 “기타, 하프”가 있었지만 “참고 구절”들에 나타난 단어들을 번역한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을 저자가 “번역” 항목에서 밝히고 있다. 프리츠에 따르면 각각의 문화마다 차이가 있기에 번역자는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악

기들을 번역할 때 그 문화권에서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성서를 번역하고자 하는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약기로 대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묘사” 항목에 나타나고 있다.

“묘사” 항목의 첫 문장은 “*nevel*”을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아주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프”로도 “고대 현악기”의 일종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 하프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울리는 울림통에서부터 악기의 목이 돌출되어 나온 것으로 악기의 목 부분에 줄이 묶여져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악기의 몸체는 나무로 되어 있고 줄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히브리어 “*nevel*”이라는 악기를 번역할 때 번역하는 그 문화권에서 이에 상응할 만한 악기를 찾아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8장은 “운송 수단”과 관련된 물건들에 대한 장이다. 이 장의 특이점은 배에 관한 항목들이 다양한 것이다. 8장 전체가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에 관련하여 다시 11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서 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 시대를 대표하는 운송 수단은 배였기 때문이다.

배와 관련된 소분류가 모두 11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도 “번역”에서 제안하기를 조그만 낚시배와 배 또는 선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프리츠는 많은 언어권에서 “갑판”의 유무가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번역자가 피해야 하는 번역은 현대적인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대양을 횡단하는 배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번역자들에게 유용한 제안이다.

“음식과 음료”에 관련된 물건들이 9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진 이 장은 번역하는 데 있어서 7장만큼이나 까다로운 부분이다.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물건들은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악기들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번역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9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나 친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다. 물론 몇몇 단어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친숙해진 단어들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올리브기름이나 “무교병(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빵”을 다루고 있는 9.4를 살펴보면 일단 “참고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모두 12개이고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그리고 외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번역”을 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프리츠는 “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성서 시대와 현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성서 시대에는 “빵”이 주식이었다. 즉, “빵을 먹으라”라는 표현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식사하라”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대유법으로서 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지칭하는 좋은 예이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저자가 고려하는 것은 대략 3가지이다. 첫째는 시대적 상황이다. 즉, “빵을 떼라”는 표현은 “먹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 이유는 성서 시대에는 빵을 칼로 자르지 않은 덩어리로 식탁 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먹으라”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린다. 둘째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빵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 “*kawan*”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17:18과 44:19에 기록되어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과자”로 번역하였다. 이 단어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이방신의 모습으로 된 것이거나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빵 자체의 형태이다. 이것은 빵의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빵이 두께가 어떠한지, 이스트를 넣은 것인지 아닌지 등등을 면밀히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빵”과 관련된 한 가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음식과 음료”와 관련된 물건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장은 “개인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루고 있다. 즉, 여기에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구비하고 다니는 가방 등과 같은 물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신구들, 보석류, 그리고 화장품과 향수에 달하는 물품들을 모두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모두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5번째 항목인 “보석류, 장신구류” 항목과 6번째 항목인 “화장품” 항목은 각각 4개와 2개의 소분류를 더 가지고 있다. 10.5 항목이 특이한 것은 이사야 3:18-23에 나오는 20개가 넘는 보석류와 장신구류를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를 읽으면서 필자가 느꼈던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이사야서 3장에 나오는 그 많은 보석류와 장신구류에 대한 사전적 정의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프리츠는 한 단어마다 번역자가 피해야 할 것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분명히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4. 비평

이 책의 장점은 성서 시대의 물건들을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성서에 등장하는 500개가 넘는 “인간이 만든 물건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공헌점이다. 또한 거의 매 항목마다 등장하는 그림과 사진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번역자들에게 분명한 이미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자칫 애매할 수 있는 성서 번역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둘째는 책의 성격상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상쇄시키고 오히려 가독성을 높여 주고 있다.

성서를 번역하려고 하거나 혹은 성서를 주석하려고 할 때 이 책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성서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이 필요하며 그럴 때 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전체적인 뜻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물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정확한 주석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단어를 정확히 모를 때 일단 번역 자체가 애매한 번역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번역을 가지고는 성서 본문이 함유하고 있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오역이 아닌 오역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정확하지 않은 번역과 그것을 근거로 한 주석은 성서 본문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고착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나 공헌도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영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 책을 단순히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만 한다면 그것은 앞서 언급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공헌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제안은 이 책은 반드시 번역하되 단순한 번역이 아닌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단순 번역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번역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의 번역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서 시대의 배경에 대한 상당한 배경 지식이 갖추어져 있고, 성서 원어(히브리어, 헬라어)와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혼자가 힘들다면 여럿이 같이 공역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번역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떠한 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책의 서론에서 저자가 밝힌 것처럼, 성서에 언급되는 물건들을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거의 집필의 수준에 가까운 작업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서가 쓰였던 시대와 장소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독자들과 성서를 번역하려는 학자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은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투고 일자: 2010. 8. 26, 심사 일자: 2010. 10. 5,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5)

<주요어> (Keywords)

성서 번역, 사람이 만든 물건, 고대의 물건들, 현대적 대응물, 상응, 물질문화.

Bible translation, man-made objects, ancient things, modern counterpart, correspondence, material culture.

<Abstract>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Ray Pritz,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9)

Jun-Hyun Kim

(Luther University/Seminary)

More than five hundreds articles, which humans invented, appear in the Bible. The words used to refer to these inventions has proved challenging when translators have tried to come up with appropriate equivalents in their mother languages. The author, Ray Pritz, claims that the reason is: “raw materials vary widely, physical conditions may dictate different solutions to a common problem, and technology can differ greatly from one region to another and from one era to another.” A word which was in use in the time of Bible may no longer be in use in the present day or may require a long explanation. Such cases cause problems for the translators.

Trying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s the central motif for this book. This is also indicated by the subtitle, “HELPS FOR TRANSLATORS” however this book is not like other books which have only one subject. Unfortunately, the author has to deal with more than five hundred articles so the form of this book is more like a dictionary, but has many features dissimilar to a dictionary. If it was a dictionary, than the book may have a different shape so that words we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or simply provide a definition of a word etc. But Ray Pritz categorizes the human-made articles into ten groups: 1. Occupations, 2. Warfare, 3. Buildings and Structures, 4. Religion, 5. Household, 6. Clothing, 7. Music, 8. Transportation, 9. Food and Drink, 10. Personal. Each group is a chapter in the book. Depending on the different types, each chapter is divided into smaller, more detailed groups. Thus, this book is classified into about 430 lists. Each article usually has 4 sections which are “References”, “Description”, “Usage”, and “Translation”. In some cases “Description” and “Usage” are combined. The author has consulted 30 different Bible versions in English, German, Italian, French, and Spanish.

Most articles have either an illustration or a picture which helps to explain the

objects. The pictures are taken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s. “Translation” section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ook and would be the most useful help for the translators because Ray Pritz gives a guide or a suggestion about the real meaning of the word in the Bible and how translators stay true to the meaning when transferred into their own languages. There are three suggestions: first, “borrow a word from a regional or trade language”. Second, “expand the translation somewhat to describe the object or its function”. Third, replace a word “when objects are used figuratively”. These suggestions are not the only solutions for the translation itself, but will be a useful guide for translators.

The Bible was written in Hebrew and Greek so it has to be translated into regional languag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book is very helpful and useful to those who have a knowledge of the Bible at only a surface level; and are not so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Israel; and are not acquainted with Hebrew and Greek. Knowing the precise meaning of a word in the Bibl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directly influence the process of exegesis. If someone misunderstood a word and kept using that word incorrectly, then it may pose a challenge to the mores of Christian faith. Because of this, when translating a word, a scholar has to keep at once the biblical meaning and also be concerned about the interest of modern regional readers. It is a great task and yet also a huge burden. Especially, in the Korean context, the task i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many Korean words come from Koreanized-Chinese characters. These words have been used over many generations. Most Koreans do not recognize this fact. It will be a big challenge for translators. Thus, translators who will translate this book need to be concerned not only to translate but also to do so in a way that adequately explains a word’s meaning and function in the Korean context.